

STRATEGY 21

통권38호 Vol. 18, No. 3, Winter 2015

1949년 미(美) 제독들의 반란이 한국 해군에게 주는 시사점*

신 문 경**

I. 서론

II. 독립성과 통합화에서의 갈림길, 그리고 제독들의 반란

1. 갈등의 서막
2. 해군과 공군 역할 경계에 대한 논란
3. 항모 건조의 취소와 항공 전력의 주도권전의 시작
4. B-36 청문회 개최와 제독들의 반란

III. 제독들의 반란에서 나타난 미 해군의 단면

1. 타군과의 주도권 투쟁에 있어서의 해군 지휘부의 실패
2. 자군 이기주의와 해군 내의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의 심화
3. 해군 발전 기여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

IV. 한국 해군에 주는 시사점

1. OP-23과 같은 조직의 창설과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
2. 통합 전력 증강에 대한 거시적 시각의 필요성

V. 결론

* 본 논문은 제6회 해양학술 논문공모 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임.

** 해군사관생도.

I. 서론

현재 명실상부 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그 어디든 전력 투사가 가능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강대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10개에 달하는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5대양의 해양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수준의 미 해군도 50년 전, 미 공군과 육군에 밀려 국가 핵심 전력에서 단순 보조 전력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 1950년 국방예산에서, 미 해군의 정책들은 우선순위에서 하위로 밀려났으며 해군 항공대 전력에 투자되는 예산들 또한 줄줄이 보류되었다. 해군에 대한 여론 역시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에서 미 해군 제독들에 의해 소위 ‘제독들의 반란¹⁾’이라고 불리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제독들의 반란’이 일어났던 1949년 당시에는 이 일과 관련된 여러 문서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사건의 객관적 분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제독들의 반란’을 공군에 대항한 주도권 싸움에서의 패배라고 보았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이후, 관련 문서들이 줄줄이 공개됨에 따라 ‘제독들의 반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재조명 되었고 이와 관련한 활발한 연구 또한 진행 되게 되었다. 결국 과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제독들의 반란’이 최근에는 ‘현재의 미국 항모 시대를 열게 한 초석이 되었다’는 호평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제독들의 반란’은 미국에서 꾸준하면서도 활발하게 연구된 주제²⁾인 반면, 국내에서는 이를 다룬 연구가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다. 그 예로 2009년, 대한

1) 1949년 10월 6일에 B-36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해·공군에 대한 하원의 청문회에서 루이스 덴펠트(Louis E Denfeld) 해군참모총장의 연설을 당시 언론에서는 ‘제독들의 반란’이라고 표현하였다.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루이스 존슨(Louis A. Johnson)과 해군장관이었던 프랜시스 매튜(Francis P Matthews)는 루이스 덴펠트(Louis E Denfeld) 대장이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신형 항모 취소 결정과 공군의 B-36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당일 연설에서의 루이스 덴펠트(Louis E Denfeld)는 기존의 예상을 뒤엎고 해군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연설을 하여 그의 상관들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해군장관과 국방장관의 뜻에 항명에 가까운 연설을 하였다고 해서 당시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반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사화 시켰다. 즉 ‘제독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은 사건의 성격을 반영한 것일 뿐 제독들이 실제로 쿠데타를 계획한 것은 아니다.

2) ‘제독들의 반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Lawrence J. Legere, Jr, ‘Unification of the Armed Forces.’; Murray Green, ‘Stuart Symington and the B-36.’; B. Vincent Davis, Admirals, ‘Politics and Postwar Defense Policy.’; Andrew L. Lewis, LCDR, USN, ‘The Revolt of the Admirals.’ 등이 있다.

민국해양연맹에 문희목씨가 최초로 ‘1949년 미국해군제독들의 반란’이라는 학술논문을 기재하였고 이어 2010년에 J. G. Barlow 박사가 ‘Revolt of the admirals’라는 책을 국내에 번역본으로 출판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내에 간단한 내용만을 소개 했을 뿐,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나 교훈을 한국 해군의 실정에 맞게 직접적으로 대입하여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논문에서는 ‘1949년 제독들의 반란 사건’을 통해 현재 한국 해군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의 공통점을 드러내어 그 속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금의 한국 해군은 1949년의 미국 해군과 같은 맥락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 해군은 부족한 국방예산에 대해 보다 높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타군과 소리 없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및 해군 비리 문제, 그리고 성 군기 위반 사건은 예산의 확보와 해군의 미래 청사진 구축에 있어 크나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독도함 건조 및 이지스함의 보유로 대양해군의 면모를 조금씩 갖추어 가던 한국 해군은 1949년의 미 해군과 같이 해군의 미래에 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미래에 대한 선택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해군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장차 해군이 국가 방위의 핵심 군이 될지 아니면 보조 전력이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한 해 국방 예산은 37조원으로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나 북한의 비대칭 및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주변 강국의 해·공군 강화 정책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도 국가라는 지정학적 현실로 인해 육군, 해군, 공군 모두 균형적인 전력을 갖추어야 하고, 북한(실재하는 위협)과 주변 강국(잠재적인 위협)에 이중으로 대처해야 하는 한국군의 상황을 보았을 때, 1949년의 미군 만큼이나 예산 확보나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삼군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지금의 한국해군이 대한민국의 안보의 확실한 보장과 장차 미래 핵심 방위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독들의 반란’을 통해 얻어낸 시사점을 교훈으로 삼아 아 해군의 정책에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제독들의 반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3장에서는 당시 1949년 미 해군이 보여주었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1949년 당시 미 해군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 해군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언급하고자 한다.

Ⅱ. 독립성과 통합화에서의 갈림길, 그리고 제독들의 반란

1. 갈등의 서막

미국에서 ‘제독들의 반란’이 시작된 시기와 마무리된 시기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1945년부터 1950년까지라고 정의되어 있다.³⁾ 이 시기는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전시 동원 체제가 해제되어 전시만큼의 국방 예산 책정이 불가능해진 기간이다. 이로 인해 지휘구조의 일원화와 각 군간 중복되는 예산 절감을 위해 군 간 통합화 움직임⁴⁾이 정치권과 군내에서 일어났다. 또한 통합의 움직임 외에도 육군에서 항공대가 본격적으로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1945년 전후의 시기를 ‘제독들의 반란’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시기라고 본다.

하지만 육군 항공대(공군)와 해군 간 벌어졌던 갈등의 시작을 제대로 보려면 1차 대전 후인 192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아야 한다.⁵⁾ 1차 대전 때 수색 정찰기로 등장했던 항공기는 전쟁 말기로 갈수록 각 전장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항공기의 역할 증대와 항공기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신봉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의 윌리엄 미첼(William John Mitchell, 1879-1936) 장군은 그러한 항공 신봉자들 중 한 명이었다. 미첼(William John Mitchell)은 미국 내에서 꾸준히 항공력의 우월성

3) 제독들의 반란 시기를 1945년부터 1950년까지로 본 논문으로는 문희목 (2009), 「1949년 미 해군 제독들의 반란, Andrew L. Lewis, LCDR, USN(1998), "The Revolt of the Admirals" 『AIR COMMAND AND STAFF COLLEGE AIR UNIVERSITY』가 있고, 저서로는 George W. Baer 지음, 김주식 옮김, 『One Hundred Years of Sea Power the USA NAVY, 1890-1990』(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Daniel J. Carrison, The United States Navy(FREDERICK A. PRAEGER, Publisher)이 있다.

4) 여기서 말하는 각 군 간의 통합화 움직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으로는 1947년 7월 26일에 발표된 국가안보법(the national security act)가 있다. 본래 미국 내 처음 통합화 움직임이 나타났던 이유는 당시 해군과 육군에서 보였던 중복적인 자원, 인력, 시설, 업무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 움직임 초기에는 단일 전쟁성(a single department of war)창설이 주장되었다. 이후 국가안보법이 정식 발의되면서 지금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합동참모본부(JCS)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어 군의 통합성과 합동성을 증진시켰다. 또한 국가안보법 법안에는 미국 공군의 독립과 3군 간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군 간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5) J.G. Barlow 지음, 윤영식 옮김, 『제독들의 반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해군항공을 위한 투쟁』, (서울: 랜드 앤 마린, 2010)에서 J. G. Barlow 박사는 해 공군 간의 갈등의 시작을 1920년 초반부터라고 책 초반부에 언급하고 있다.

과 육군에서의 공군 부대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1921년에는 육군 항공부대 부사령관이 되어 나포한 독일 전함에 폭탄을 공중에서 떨어뜨려 맞추는 실험에 성공한 데 자극을 받아 독립 항공부대 창설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였다.⁶⁾ 항공대의 독립과 더불어 육군과 해군의 모든 항공 전력을 독립 공군 하에 두어야 한다는 미첼과 항공기 신봉자들의 주장은 해군에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후 군 지휘구조의 일원화와 예산 절감의 측면에서 미국 내에서 1945년 이후 본격적으로 통합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초기에는 육군과 해군 모두 통합 시도를 반대하였다. 두 군 모두 급격한 군 조직 구조의 개편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일 육군은 통합된 국방 조직의 설립(통합에 대한 찬성)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하였다. 당시 군 예산 분배에 관한 문제는 의회가 정액 할당제로 배분하고 있었는데, 의회가 군 예산 분배권을 가지고 있다면 예상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군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의 제시였다. 하지만 당시 육군은 2차 대전 당시 태평양과 유럽 전역에서 활약했던 육군 항공대와 해군만큼 좋은 국민적 여론과 의회의 지지를 받고 못하였다. 오히려 육군의 역할 축소와 군비 감축을 받고 있는 것이 육군의 현실이었다.⁷⁾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육군의 지휘부는 의회가 아닌 통합된 국방 조직(즉 군 지휘부 내에서) 안에서 타군과 예산 경쟁을 해야만 육군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⁸⁾

하지만 해군의 경우에는 통합화 움직임을 끝까지 반대하였다. 당시 해군에 대한 비판가들은 “이제 시대가 기능적 전문화와 지휘의 집중화를 요구하는 만큼 육군 항공부대가 항공모함의 항공력을 대신하고 또한 육군이 해병대를 대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⁹⁾ 저명한 공군 지지자 중 한 명이었던 알렉산더 세발스키(Alexander P. de Seversky)는 해군의 미래에 관해서 ‘해양력이 진정한 의미를 상실할 때가 다가올 것이며 모든 군대 문제는 하늘에서 결정될 것이다. 해군이 자랑하는 무기는 기껏해야 공군의 보잘 것 없는 부속물에 불과하다.’¹⁰⁾

6) 존 키건 지음, 류한수 옮김, 『2차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 미디어, 2007), p.136.

7) J.G. Barlow, 위의 책, pp.65-67.

8) 통합된 국방 조직, 즉 합동참모본부가 설립되면 예산 분배권을 군 조직 내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았다. 즉 미국 정부에서 총 국방예산을 배정하면, 각 군에 대한 예산 분배를 의회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내에서 각 군이 토의와 논의를 거치면서 예산을 분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9) George W. Baer 지음, 김주식 옮김, 『미국 해군 100년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p.512.

10) Alexander P. De Seversky, Victory Through Air Power(New York : Simon & Schuster,

라는 발언을 하며 해군의 정체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통합화 기류 속에서 해군항공과 해병대를 타군과의 협상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온건파 보다는 타군에 대한 강경파가 해군 내에서 지배적인 기류를 띠게 되었다. 강경한 성향의 해군 지휘부 장교들은 해군 항공력을 해양통제의 기능에서 분리시켜 해군만의 독자적인 항공력 구축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해양력과 관계하여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잊고 단순히 공군의 능력을 능가하고 공군의 역할을 최대한 뺏어오는 것이 해군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¹¹⁾ 공군 역시 해군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공군 측에서는 항공 전력과 관계된 모든 것이 공군의 지휘 하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1947년 초까지 지속되다 육군항공대와 해군의 타협으로 일시적 해결되는 듯 보였다.¹²⁾

2. 해군과 공군 역할 경계에 대한 논란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갈등의 마무리 일뿐 항공 전력 주도권에 대한 해군과 공군의 뿌리 깊은 불신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194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온건파인 포레스트 셔먼(Forrest Sherman, 1896-1951) 제독이 수립한 항공모함을 이용하여 적 중심지에 폭격¹³⁾을 가하여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공군의 전략적 위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해군의 기존 목표인 해양 통제권 확보를 실현하는데 손색이 없었다. 포레스트 셔먼(Forrest Sherman) 제독은 소련의 위협적인 잠수함 기지나 북쪽의 주요 시설을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해군 전폭기나 해병대 투사를 통해 ‘근원지에 대한 공격’을 하고자 하였다.¹⁴⁾ 이는 해상 제해권 확보를 통해 얻은 해상에서의 자유를 적 지상 목표에 대한 공격으로 전력을 투사하여 해군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이었다.¹⁵⁾ 포레스트 셔먼(Forrest Sherman) 제독의 이러한 해군 전략은 타

1942), p.182.

11) George W. Baer, 위의 책, p.533

12) 해군의 경우 1947년 초에 공군독립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였고, 육군 항공대 역시 대잠전과 해양 탐색과 같은 해양임무 지원을 위한 해군의 항공기 운용권을 인정하면서 갈등은 일시적으로 마무리되었다. J.G. Barlow, 위의 책, pp.78-80.

13) 공군의 전략 폭격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해군의 전술 폭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4) George W. Baer, 위의 책, p.539.

군과의 협력의 실마리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해군 내의 해병, 항공병과에 대한 존립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¹⁶⁾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결되지 못한 해·공군 간의 갈등은 핵의 사용을 두고 다시 표면화된다. 트루먼 정부에 의한 예산 삭감과 핵 만능주의 분위기가 확산되자 핵 공격은 미국의 주요 군사 전략으로 떠올랐다. 공군은 장거리 폭격기를 이용한 핵무기의 투사를 구상하였고, 해군 역시 핵을 함정 추진체계에 이용하는 것과 신형 대형 항공모함을 통한 장거리 폭격기(해군용 XAJ-1 대형 공격기) 발전에 의한 핵무기의 투사를 구상하였다. 공군의 입장에서는 해군의 이러한 움직임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¹⁷⁾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947년 7월에 발의된 국가 안보법에 관한 군 간 합의의 일부로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 대통령은 군간 역할 규정의 일환으로 행정명령 9877을 발령하였다. 각 군의 역할과 부여된 임무에 대해 명시한 이 명령은 해군의 입장에서든 공군의 입장에서든 서로가 전략 핵무기 투사 수단을 갖추고 전략 핵 투사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었다. 해군의 경우에는 해군의 역할 규정을 나타내는 부분에 “해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군은 어떠한 종류의 항공력의 보유도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Subject to the above provision, the Navy will not be restricted as to types of aircraft maintained and operated for these purposes.)¹⁸⁾라고 명시함으로써 해군 항공은 함대 기능 중 일부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군으로부터의 독립 역시 보장받게 되었다.¹⁹⁾ 이는 해군의 입장에서 해군만의 임무 수행을 위한 신형 항공모함의 도입과 핵무기 투사를 위한 대형 폭격기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공군의 입장에서 행정명령9877은 해군의 이러한 움직임이 공군의 역할 침해라고 보여 질 수밖에 없었다. 행정명령은 공군의 역할 규정 부분에서 “미국 전략 공군과 공군의 전략적 정찰 임무”(The strategic air force of the United States and strategic air reconnaissance)²⁰⁾라고 명시하면서 전략

15) Norman Friedman, Postwar Naval Revolution(Big Hearted Books, 1986), p.22.

16) Michael A. Palmer, Origins of the maritime strategy: the development of American Naval Strategy, 1945-1955 (Naval History Center, 1990), pp.375-377.

17) J.G. Barlow, 위의 책, pp.154-155.

18) The American President project, 「executive order 9877」,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12717>(접속일: 2015. 04. 18.)

19) Stephen Howarth, To Shining Sea: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avy 1755-1998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Norman, 1999), p.480.

공군의 역할의 우위를 재확인 시켜주었다. 또한 공군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9877의 section-3에 있는 해군의 구체적 역할 부분, 즉 “해군의 역할로 해상 정찰, 대잠 작전, 함선에 대한 보호”(Naval reconnaissance, antisubmarine warfare, and protection of shipping)²¹⁾로 한정적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해군의 일련의 움직임을 명시된 역할 규정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과 월권행위라고 보았다. 이러한 해군과 공군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전략 항공공격에 대한 갈등 격화를 야기하였다.

3. 항모 건조의 취소와 항공 전력의 주도권전의 시작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행정부의 국방비 삭감과 군의 통합화 정책으로 1947년부터 해군은 고질적인 예산 삭감을 겪고 있었지만²²⁾, 신형 항모 (United states, CVA-58) 건조 허가는 거의 확실했다. 이와 더불어 뉴포트 협 의에서 공군과의 타협으로 해군은 공군을 보조하여²³⁾ 전략 핵 공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²⁴⁾ 하지만 B-36의 성능 향상²⁵⁾과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공식적인 B-36도입 허가는 해군에게 있어서는 불행의 시작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친(親)해군 성향의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포레스탈 (James V. Forrestal, 1892-1949)이 건강 상 이유와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로 사임하게 된다. 제임스 포레스탈의 후임으로 부임한 새로운 국방부 장관 루이스 존슨(Louis A. Johnson, 1891-1966)은 친(親) 공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루이스 존슨 국방장관이 부임하자 공군 내부의 항모 건조 반대 움직임이 더욱 눈에 띄게 증가했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추가적인 B-36의 구입을 승인하였다. 이에 루이스 존슨 국방장관은 예산의 절감의 일환으로 항모 사업 축

20) The American President project, 「executive order 9877」,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12717>(접속일: 2015. 04. 18.)

21) The American President project, 「executive order 9877」,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12717>(접속일: 2015. 04. 18.)

22) 공군의 독립으로 인한 예산 분산도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23) 적어도 완전히 핵무기 사용에 있어 배제되지는 않았다.

24) “Agreed Final Version of Minutes of Newport Meeting 20-22 August 1948,” 27, Box 1

25) 기존의 B-36B에 제트엔진과 K-1체계를 탑재하도록 개조함으로써 항공기의 기존 속력과 폭격 정확도가 많이 개선되었고, 항속거리 역시 증가하였다. (Annex B to memo, Symington to Forrestal, 4 Feb 1949)

소를 고려하고 있었다. 해군은 이러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 OP-23²⁶⁾의 지원 아래 루이스 덴펠트(Louis E. Denfeld, 1891-1972) 해군참모총장과 존 설리반(John L. Sullivan, 1899-1982) 해군장관이 갖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루이스 존슨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모 건조 취소(1949. 4. 23)를 막지 못했다.²⁷⁾

CVA-58 항모 건조의 취소는 해군 입장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여기서 해군장관 존 설리반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공군의 B-36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존 설리반이 이러한 분위기를 좀 더 고려해 보았다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친(親)해군 고위 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존 설리반은 건조 취소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장관직 사임이라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이는 이후에 해군이 공군과의 정치적 싸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²⁸⁾ 또한 공군과의 예산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해군참모차장 레드포드 중장이 태평양 사령부로 전출되었고, 존 설리반의 뒤를 이은 신임 해군장관인 프랜시스 매튜(Francis P. Matthews, 1887-1952)는 루이스 존슨에게 너무 순종적인 인물이었다.²⁹⁾ 또한 그는 해군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해군 내부에서 많은 친(親)해군 인사의 교체와 기존의 제독들과 새로 부임한 프랜시스 매튜 장관의 불협화음은 1949년을 해군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시기로 남게 만들었다.

이후 해군차관 특별보좌관 세드릭 워스(Cedric R. Worth)의 익명 B-36비방 투서³⁰⁾, 공군 B-36에 대한 해군의 요격 실험 등 공군 정책에 대한 해군의 적극적인 반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해군은 미 고위층 인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을 실패하였다.³¹⁾ 이러한 해군의 자극적인 노력들은 루이스 존

26) 해군 조직/정책처(Organizational Research and Policy Division Operation-23)의 약자로서 기존의 다른 정책 조직들과는 다르게 해군참모총장의 직속 예하에서 통합문제, 해군 정책 문제 등 해군 전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해군 고위 장교들에게 논리적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일종의 해군의 thinktank였다. 때로는 친(親)해군 여론 조성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27) George W. Baer, 위의 책, p.573.

28) 미국의 군 체계는 한국과는 다르게 각 군의 최고 장관들은 모두 민간인 출신(정치인)이다. 문민통제가 확실한 군 체계이다. 따라서 국방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는 장성(현역 군인)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지휘부의 최고위층인 민간인 장관의 역할(그들의 정치적 수완) 또한 매우 중요하다.

29) George W. Baer, 위의 책, p.575.

30) 공군 B-36의 성능 문제, 그리고 연합항공사와 공군 고위부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근거 없는 일종의 공개적인 익명 투서 사건을 의미한다.

31) 본래 훌륭한 해군 지지자였던 하원의원 빈슨(Carl Vinson)조차도 공군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빈슨)와 해군과의 오랜 연인관계는 이제 분명히 끝났다.'라고 서술

슨과 같은 고위층을 자극할 뿐이었다. 위스의 투서문제는 결국 근거 없는 루머의 확산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과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기 위한 B-36 청문회 개최로 이어지게 된다.

4. B-36 청문회 개최와 제독들의 반란

위스의 투서 사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해·공군간의 선전활동이 도를 넘어서게 되자 하원 군사위원회의 빈슨은 양군의 입장 정리와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는 곧 하원 의원회에서 청문회 개최와 관련된 공동 성명을 채택한다.³²⁾ 성명이 발표된 이후, 1949년 8월 9일에 해군과 공군의 첫 B-36 청문회가 개최된다. 하지만 청문회 초기 해군 내에서 매튜 해군장관과 루이스 덴펠트(Louis E Denfeld) 해군참모총장은 청문회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도 내리지 않았고, 청문회 준비 TF와 해군 고위부 간에 입장 표명 수위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여 준비 상황이 지지부진하였다.

상황이 지지부진하자 사실상 해군의 청문회 준비는 중단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공군이 고위부 중심으로 빠르게 청문회에서의 전쟁을 준비할 동안 해군은 많은 시간을 소강상태로 보내야만 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태평양 사령부로 진출된 레드포드 제독은 청문회 준비에 대한 지원 사격을 위해 워싱턴으로 오게 된다. 여기에 버크 대령 중심의 OP-23이 해군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청문회에서 해군을 지지할 논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³³⁾ 레드포드와 OP-23의 노력으로 해군은 청문회까지 어느 정도의 의견 정리와 공군과의 투쟁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청문회 초반부터 위스의 투서가 점차 신뢰성이 없는 루머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해군은 신뢰성에 있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루이스 존슨 국방부장관과 프랜시스 매튜 해군장관이 해군 지휘부에 공군의 입장에 대한 반박을 자제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³⁴⁾ 후반기 레드포드

할 정도 였다고 한다. (Barlow, "The Revolt of the Admirals Reconsidered," pp.19-21.)

32) "Air Power 'Lobby' Warned," New York Times 기사에서 인용하였다.

33) Ken Jones & Hubert Kelley, Jr. 지음, 김주식 옮김, 『Arleigh Albert Burke 제독: 현대 미국 해군의 아버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p.284-258.

제독의 날카로운 공군에 대한 비판과 해군의 의견 대변이 해군 측에 활력을 주기도 하였지만,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브래들리(Omar Bradley, 1893-1981) 장군이 “지난 전쟁에서 수행된 시실리와 노르망디와 같은 결정적인 전투에서 해병대와 항공모함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 라고 발언하면서 해군은 다시 수세에 몰리게 된다.³⁵⁾ 이제 해군에게 있어 남은 마지막 카드는 루이스 덴펠트 제독의 마무리 발언뿐이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루이스 덴펠트 제독이 프랜시스 매튜 해군성 장관과 루이스 존슨 국방부장관의 뜻에 따라 해군의 입장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대변하거나 공군을 직접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오히려 앞서 발언하였던 여러 해군 증인들과는 다른 논지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였다.³⁶⁾ 하지만 마무리 발언 당일 루이스 덴펠트는 해군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상관들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의견까지 제시하면서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청문회에서의 루이스 덴펠트의 예상 밖의 행동은 루이스 존슨 장관과 프랜시스 매튜 해군성 장관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제독들의 반란’ 이라고 불리었다.³⁷⁾

‘제독들의 반란’ 사건 이후 루이스 덴펠트 해군참모총장은 루이스 존슨과 프랜시스 매튜 장관의 눈 밖에 나게 되어 결국 사임하게 되고, 후임 참모총장으로 포레스트 셔먼 중장이 임명된다. 또한 OP-23은 공군과 육군을 포함하는 해군 조직이라는 오명 아래 신임 참모총장인 포레스트 셔먼 제독에 의해 해체되게 되고, 레드포드 제독 역시 다시 태평양으로 파견된다.³⁸⁾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신형 항모 건조의 취소 결정도 뒤집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청문회와 ‘제독들의 반란’ 사건은 육·공군과의 주도권 전쟁에서 해군의 패배였다. 여기까지가 1920년대부터 이어져온 공군과 해군의

34) 프랜시스 매튜(Francis P Matthews) 해군장관은 OP-23이 자신이 해군 제독들을 압박하였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언론에 유출시켰다는 죄를 물어 버크 제독을 중심으로 한 OP-23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

35) Merrill, Dennis, Documentary history of the Truman presidency, Vol. 10, President Truman's fight to unify the armed services, 1945-1949(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6), pp.472- 525.

36) J.G. Barlow, 위의 책, p.317.

37) William S. White, “Denfeld Sees Navy Gravely Imperiled By Chiefs' Decision,” New York Times, 14 Oct 1949, 1.; “Revolt of the Admirals” New York Times, 17 Oct 1949(Time, 10/17/1949, Vol 54 Issue 16, p23, 4p.

38) George W. Baer, 위의 책, p.583. ; J.G. Barlow 박사 지음, 윤영식 제독 옮김, 『제독들의 반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해군항공을 위한 투쟁』, (서울: 랜드 앤 마린, 2010), pp.341-358.

갈등, 그리고 1949의 ‘제독들의 반란’의 역사의 단면이었다.

Ⅲ. 제독들의 반란에서 나타난 미 해군의 단면

1. 타군과의 주도권 투쟁에 있어서의 해군 지휘부의 실패

가. 정책 홍보에 있어서의 각 군의 적극성의 차이

사실 대형 평갑판 항모 건조와 해군 전폭기 개발 계획은 비용 면을 제외하고는 공군의 계획보다 훨씬 타당성이 있었다. 공군의 장거리 폭격기 개발 계획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가서야 전략 폭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 탑재 능력과 항속 거리를 가지게 되었다.³⁹⁾ 즉 공군의 B-36에 대해 해군이 가지는 정책적, 기술적 우위는 1949년까지도 존재했다. 공군의 경우 B-36폭격기 개발이 생각보다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다. 방어 체계와 속도 및 고도를 개선시키면 연료 부족에 따른 거리 단축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 공군은 꽤 오랫동안 이러한 기술적 난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⁴⁰⁾ 이와 더불어 당시 국방부장관인 친(親)해군 성향의 제임스 포레스털의 압력 역시 공군으로 하여금 전략 핵 폭격에 있어 해군의 역할을 인정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뉴포트 회의⁴¹⁾에 의해 공군은 해군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권리와 전략항공 공격의 수행과정에서 공군을 보좌한다는 부분적인 역할을 인정했다.⁴²⁾

초반에 해군이 거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점차 전략 항공전과 핵의 사용에 대한 주도권 싸움은 공군의 효과적인 홍보와 기술적 한계의 극복으로 점차 공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된다. 먼저 공군은 1945년부터 꾸준히 친(親) 공군 여

39) George W. Baer, 위의 책, p.540.

40) “Revised Military Characteristics” in Marcelle S.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Vol. 2, Post World War II Bomber, 1945-1973 (Washington: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SAF, 1988)

41) 전략항공전과 핵의 사용에 대해 해군과 공군의 갈등이 격화되자 당시 국방부장관 포레스털은 1948년 8월 20일 로드아일랜드 뉴포트의 해군대학에 양군 지휘관을 불러 양군의 타협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말이 타협일 뿐 사실상 공군의 판정패와 다름이 없었다.

42) J.G. Barlow, 위의 책, p.179.

론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한다. 공군은 홍보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인 기자 출신 스텝 레오(Stephen F. Leo)를 기용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레오는 공군 홍보에 있어 기존의 군 출신이 보여주지 못했던 저돌성과 융통성을 보여준다. 레오는 친(親)해군 신문기사나 잡지에 대해 철저히 분류하여 일일이 반박했을 뿐 아니라 친(親) 공군 기사나 잡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해군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도서의 출판과 노골적인 내용의 해군 비판 기사를 연재⁴³⁾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레오의 저돌적인 홍보와 해군 비판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가 있다. 해군이 B-36의 성능에 대해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자, 레오는 공개적으로 해군을 “현시대의 해군은 통제 불능이며 국가 안보법과 통합에 대해 치졸한 반대를 한다.” 식으로 비판하였다.⁴⁴⁾ 예산의 최종 승인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친(親) 공군적 분위기를 형성시켰다.

해군 역시 공군의 이러한 홍보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는 해군성에 복무 중이던 민간인 출신의 홍보원 이었던 한슨과 바버의 집필 노력⁴⁵⁾이 있었다. 하지만 해군은 공군과의 홍보전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침묵과 방관을 고집하였다. 또한 1948년 해군 홍보를 담당하던 워털 카링(Walter Karig) 대령은 해군의 홍보 수준에 대해서 “아직도 거름을 뿌리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해군에 있어 홍보 분야는 쓰레기 더미로 취급 받는다.”라고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였다.⁴⁶⁾ 해군 지휘부에서 홍보 관련 예산을 부족하게 배정하다 보니 창조적이고 공세적인 홍보 활동이 있

43)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친(親) 공군 성향의 휴이에 의해 Reader's Digest지에 실린 4편의 해군 항공에 대한 비판 시리즈 기사이다. 당시 Reader's Digest지는 미국 내 가장 많은 잡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언론지였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잡지를 통한 공군 홍보는 국민 여론을 공군에 우호적으로 만들기 충분하였다.

44) Herman S. Wolk, Fulcrum of power : essays o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nd national security(New York: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2003), p.176.

45) 한슨의 경우에는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공군 지지 글에 대해서 반박하는 역할을 하다가 공군의 강력한 항의(레오와 W. Stuart Symington의 회유 압력과 해군성에 공개적 항의 전달)에 의해 강제로 다른 곳으로 전출되고, 바버 역시 공군의 방해공작으로 해군에서 해고되게 된다. 하지만 바버의 경우 여러 가명으로 지속적으로 언론에 반(反)공군 정서의 기사와 글을 개체하였고, 이중 가장 유명한 글이 바로 버펄로 이브닝 뉴스에 기재한 ‘육상항공기 대 항모항공기 비교평가’라는 비교분석의 글이다. (Memo, L to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Navy Dept., 21 April 1948, box 13, Radford Papers, OA.)

46) Jeffrey G. Barlow, “The Revolt of the Admiral’s Reconsidered,” in William B. Cogar, ed., New Interpretations in Naval History(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9), p.228 ; Coletta, United States Navy and Defense Unification, p.161

을 수가 없었다. 반면 공군 지휘부는 해군의 홍보활동에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공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반(反) 공군 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와 적극성의 차이는 미국 내 여론을 점차적으로 공군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주 원인이 되었다.

나. 정치권에서의 공군의 홍보 공세와 해군 내부의 분열

공군과의 언론전에서 보여준 해군의 소극적인 태도 외에도 당시 국방부 인사에서 친(親) 공군적인 성향의 고위부 인사들로 대거 교체된 것도 해군이 공군과의 예산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방조직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예하에 각 군별로 장관이 배치되어 군인과 민간부분의 균형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군이 타군과의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각 군 장관과 참모총장간의 의견 일치와 단일한 정책적, 정치적 노력이었다.

〈표 1〉 미국 민군 관련 고위직 인사 변화와 성향

직책	1947	1949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공군 우호)	
국방 장관	James V Forrestal (해군 우호)	루이스 존슨(Louis A. Johnson) (공군 우호)
육군성	공군의 정책을 지지함.	
해군 장관	존 설리반(John L. Sullivan) (해군 우호)	프랜시스 매튜(Francis P Matthews) (공군 우호)
해군 참모총장	Chester William Nimitz (해군 우호)	Louis E. Denfold (해군 우호)
공군 장관	W. Stuart Symington(공군 우호)	
공군 참모총장	Hoyt S. Vandenberg(공군 우호)	
합동 참모본부 의장	브래들리(Omar Bradley)(공군 우호)	

하지만 당시 해군의 경우 신임 국방부장관 루이스 존슨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이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해군성 내부에서도 장기적 정책 결정과 전략에 있어 해군성 장관 프랜시스 매튜)와 루이스 덴펠트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해군

제독들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Finance, U.S. Chamber of Commerce(미재정상공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프랜시스 매튜 장관은 해군 전력 건설을 예산 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짙었다.⁴⁷⁾ 정책 수행에 있어 경제성과 예산 분배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랜시스 매튜 장관에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해군의 항공모함 사업이 긍정적 일수는 없었다. 공군장관을 중심으로 단결된 공군의 분위기와는 다른 해군 내부의 이러한 의견 분열은 해공군의 주도권 싸움에 있어 해군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당시 미 정부의 친(親) 공군 인사의 국방부 장관 임명, 그리고 국방부 내에서의 해군지지 관료들의 사임으로 해군의 영향력이 군 내에서 줄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의결기관인 국회를 적극적으로 공략했어야 했다. 국방부 내에서 해군 정책 관련 지지의 확보가 어렵다면 국방 예산 의결 기관인 국회의 의원들과 국회 여론을 움직여 친(親) 해군 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했지만 해군은 그렇지 못했다. 다음은 1946-1950년 사이에 건조가 취소된 항공모함의 명단이다. 이 시기에 해군에서는 많은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의회와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대부분 조기에 취소되었고, 어떤 계획은 초기 건조 과정 중 갑작스럽게 취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는 45-50년 사이에 미국 해군이 의회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1945-1950년 사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⁴⁸⁾

항 모	이름	허가	급	상 태
CV-35	Reprisal	취소(1945.8.12)	Essex-class(extended bow)	건조 도중에 취소됨.
CVB-44		취소	Midway-Class	취소
CV-46	Iwo Jima	취소(1945.8.12)	Essex-class (extended bow)	건조 도중에 취소됨.
CV-50		취소	Essex-class(extended bow)	취소
CV-51		취소	Essex-class(extended bow)	취소

47) 「Profile of Francis P. Matthews」

<http://www.trumanlibrary.org/profile/viewpro.php?pid=137>(접속일: 2015. 04. 28.)

48) Ronald O'Rourke "Navy Ford (CVN-78) Class Aircraft Carrier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 ;

<http://www.gonavy.jp/CVLocation.html>(접속일: 2015. 05.12)

항 모	이름	허가	급	상 태
CV-52		취소	Essex-class(extended bow)	취소
CV-53		취소	Essex-class(extended bow)	취소
CV-54		취소	Essex-class(extended bow)	취소
CV-55		취소	Essex-class(extended bow)	취소
CVB-56		취소	Midway-class	취소
CVB-57		취소	Midway-class	취소
CVA-58	United States	취소(1949. 4. 23)	United States-Class Supercarrier, lead ship	건조 시작 5일 만에 국방부장관의 결정으로 취소됨.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947년과 1950년 사이의 건조 계획된 항공모함들이 대부분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1948년 회계연도부터 국회가 최종 승인한 해군 할당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전체적인 해군의 예산 감소는 해군의 차기 항공모함 건조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의회에서 해군이 공군과 육군에 비해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시기에 많은 친(親)해군 국회의원들이 공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로비에 의해 공군 지지로 선회하면서 정치권에 서의 해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⁴⁹⁾

2. 자군 이기주의와 해군 내의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의 심화

미국의 1945-1950년까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은 크게 창과 방패로 대변할 수 있다.⁵⁰⁾ 먼저 미국은 철의 장막을 치는 소련에 맞서서 트루먼 독트린(창)을 기반으로 반(反) 소련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여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펼쳤다.⁵¹⁾ 또한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소련에 맞서서 마셜 플랜(방패)을 통해 유럽을 회

49) George W. Baer, 위의 책, p.576.

50) Professor Brnaislav L. Slantchev, "National Security Strategy: Sword and Shield., 1945-1950," (2014)

51) Stephen Howarth, To Shining Sea: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avy 1755-1998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Norman, 1999), pp.475-476.

복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 2가지 대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은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미국 국방 예산을 축소하게 되었다.⁵²⁾ 당시 미국은 전 세계 유일의 핵보유국이었고, 미국은 핵이 소련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리 트루먼 정부는 감소된 국방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가 바로 루이스 존슨 국방부장관의 임명이었다.

국방 예산 축소 정책 하에서 줄어드는 국방 예산을 두고 육, 해, 공군은 당연히 치열한 예산 확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군 이기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공군의 입장에서는 항공모함 한 대를 건조할 예산이면 B-36 장거리 폭격기 대대를 3개나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해군의 이러한 입장을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육군 역시 전략 핵 공격이 미국의 주요 군사 전략이 되는 상황에서 국외 투사 전력인 해병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반대로 해군은 전략 핵 공격을 해군 항모와 거대 항모 폭격기로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해병대 문제 역시 해군은 국외로의 군사력 투사를 위해서는 육군 보병부대와는 다른 독립된 해병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제기된 해군 항공과 공군과의 역할 중복, 육군과 해병대 간의 역할 논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47년 포레스트 셔먼 제독이 해군의 고유 목표인 해양 통제권 개념을 만족하면서 타군과의 불필요한 역할 분쟁을 최소화하는 해군만의 전략 계획을 마련하였다. 논문의 앞에서 언급한 ‘근원지에 대한 공격’ 개념인데 이것은 대륙 강국 소련과의 전쟁에서 해군의 필요성⁵³⁾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뿐 아니라 육군, 공군과의 합동성 차원에서 보면 적합한 계획이었다.⁵⁴⁾ 하지만 공군과 해군 항공대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자 해군은 초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단순히 공군보다 많은 예산, 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쟁을 위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공군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군은 상대방의 무기 체계나 예산과 관련된 근거 없는

52) 1948년과 1949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앞으로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미국은 전세계 유일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의 재래식 전력의 증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1949년 8월 29일 소련이 핵 실험에 성공하자, 본격적으로 재래식 증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하지만 당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래식 전력을 증강한 것은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이후였다.

53) 해군 항공대와 해병대의 존재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54) George W. Baer, 위의 책, pp.539-541.

흑색선전을 하거나 자극적인 문구의 기사나 책을 내어 상대방을 비방하였다. 공군의 B-36에 대한 익명의 비방 투서, ‘제독들에 대한 고발’ 책 출간이 대표적이다.⁵⁵⁾ 이러한 각 군의 상대방에 대한 이기주의적 비판과 비방 전략은 각 군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고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의 대외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었다.

또한 해군 내에서도 1948년 이래로 줄어드는 예산을 두고 항공병과와 해병대 장교들 사이에서 갈등과 불만이 제기되었다.⁵⁶⁾ 예산의 감축으로 해군 항공과 해병대의 예산 확보가 힘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해군 내에서의 항공장교들의 불만이 표출된 사례가 바로 “크로멜린 대령의 2번의 폭로 사건⁵⁷⁾”이었다. 크로멜린의 기자회견은 많은 해군 장교들에게는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루이스 존슨 국방부장관을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공군과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켜 청문회를 더욱 과열되게 하였다. 오히려 군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해군 지휘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은 자칫 해군 전체의 입장으로 비추어 질 수 있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크로멜린의 폭로는 해군장관 프랜시스 매튜를 자극하여 해군 내에서도 청문회 관련 준비에 차질을 주었다.⁵⁸⁾

3. 해군 발전 기여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

통합화 논쟁과 타군과의 예산 확보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 지휘부는 해군 참모총장 직속의 조직으로 OP-23(Organizational Research and Policy Division Operation-23) 해군 조직/연구 정책처를 만들게 되었다. OP-23의

55) Edward P. Stafford, “Saving Carrier Aviation-1949 Style,” U.S. Naval Institute Processings 116, p.49.

56) Gordon W. Keiser, The U.S. Marine Corps and Defense Unification, 1944-47: the politics of survival(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2), p.45.

57) 해군 예산 감축으로 그에 대한 여파가 해군 항공에 대한 규모 감축으로 이어지자 많은 항공장교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해군 자체에서도 항공병과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자 해군조종사 출신 크로멜린 대령은 청문회 도중 독자적으로 국방성과 일부 장관들을 비판하는 논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히틀러에 의해 고용된 프리시아의 옛날 장군들 같다”라고 말하며 군 지휘부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McFarland, Keith, The 1949 Revolt of the Admirals, 1980), pp.102-103.

58) J.G. Barlow, 위의 책, pp.298-300.

수장으로는 태평양 전쟁 때 많은 활약을 벌인 유능한 해군 장교인 알레이 버크(Arleigh Albert Burke, 1901-1996) 대령을 임명하였다. 알레이 버크(Arleigh Albert Burke)가 지휘하는 OP-23은 공군과 육군의 견제에 대항하는 해군 지휘부 노력에 강력한 정책적 논거들을 제시하였다. 사실상 버크의 OP-23은 타군과의 경쟁의 일선에서 싸우는 최전방이라 할 수 있었다.

알레이 버크를 중심으로 한 OP-23은 B-36관련 청문회에 준비에 구심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군에 대항한 친(親) 해군 여론 조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때로는 프랜시스 매튜와 같은 해군 고위 지휘부와의 충돌 또한 불사하였다. 또한 청문회 준비 과정 중에는 프랜시스 매튜 장관의 오토로 인하여 해군 감찰실에 의해 강도 높은 내부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⁵⁹⁾ 결론적으로만 보면 청문회는 표면적으로 해군의 패배였으나, OP-23의 노력으로 후일 의회와 여론에 해군에 대한 관심과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청문회 이후 루이스 덴펠트 해군참모총장은 프랜시스 매튜 해군장관과 루이스 존슨 국방부장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 사임하게 되었다. 루이스 덴펠트 총장의 후임으로는 포레스트 셔먼 제독이 신임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다. 포레스트 셔먼 총장이 부임한 직후 프랜시스 매튜와 루이스 존슨 장관은 자신들에게 반대했던 버크와 OP-23, 그리고 그 외의 해군 장교들에게 인사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다. OP-23은 결국 해체되었고, 버크 역시 루이스 존슨과 프랜시스 매튜 장관의 반대로 장성 진급 심사 명단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⁶⁰⁾ 하지만 당시 포레스트 셔먼 제독과 해군의 여러 제독들, 그리고 버크의 동기이자 대통령 해군 보좌관이었던 데니슨은 버크가 지난 3년간 해군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을 알고 있었다. 당시 OP-23에 대한 여론과 국방부 내에서 버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지휘부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탄원까지 하며 버크를 장성 진급 명단에 포함시켰다.⁶¹⁾

청문회 기간에 2번의 폭로를 통해 해군 항공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국방부 고위층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던 크로멜린 대령조차도 포레스트 셔먼

59) Ken Jones & Hubert Kelley, Jr. 지음, 김주식 옮김, 『Arleigh Albert Burke 제독: 현대 미국 해군의 아버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p.280-283.

60) 위의 책, p.583.

61) J.G. Barlow, 위의 책, pp.350-357.

해군 참모총장은 그의 경력을 보장하여 해군에 남기려 하였다. 비록 그의 예기치 못한 폭로가 청문회를 더욱 과열시키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해군의 미래를 위해 헌신했다는 점에서는 포레스트 셔먼 제독과 해군 항공 장교들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었다. 포레스트 셔먼 제독은 후일 공군과 국방부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그의 경력을 보장하겠다고 크로멜린 대령⁶²⁾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을 정도로 해군 기여자들에 대한 안위 보장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알레이 버크와 클로멜린 대령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해군 지휘부는 청문회에 관련되어 희생했던 사람들의 안위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레이 버크와 클로멜린 모두 당시 공군과 국방부 측에서는 해군 요주 인물이었고, 이들의 활동 내역에 관한 여론 역시 좋지 않았다. 이들의 진급 보장과 경력 보장을 한다는 자체가 해군 지휘부에 있어서는 많은 부담이었다. 포레스트 셔먼 제독의 경우에는 자칫 루이스 존슨 국방부장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포레스트 셔먼 제독과 해군 지휘부는 해군 기여자들에 대한 구제에 노력을 다했고,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현대 미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레이 버크 해군 참모총장의 탄생이 있을 수 있었다.

IV. 한국 해군에 주는 시사점

1. OP-23과 같은 조직의 창설과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

알레이 버크 중심의 OP-23(Organizational Research and Policy Division Operation-23) 해군 조직/연구 정책처가 했던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공군, 육군과의 진흙탕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⁶³⁾ 본래는 '통합화 논쟁'에서 해군 반대파들의 공격과 논리에 대응하

62) 포레스트 셔먼(Forrest Sherman) 제독이 개인적으로 크로멜린 대령에게 경력 보장과 해군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령은 다시 한번 국방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의 연설을 한 후 강제 전역하는 것을 택하였다.

63) Emphasis in original, Manson Interview, 28 Jan 1989.

기 위해 만든 해군참모총장 직속의 조직이었다. 이들은 해군의 종합 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군 내부의 여론 동향과 견해를 종합하고 조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 부서의 역할이 모든 결과를 통제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당시 OP-23이 미 해군 내에서 보여준 활약은 60여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 볼 때 충분히 그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한국 해군에도 OP-23과 같은 일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해군 본부 산하에는 OP-23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로 전략기획과, 정책기획과, 정책 관리과 같은 조직이 있다.⁶⁴⁾ 하지만 위의 조직들과 OP-23의 결정적인 차이는 OP-23은 ‘통합화 논쟁’ ‘B-36관련 하원위원회 청문회 준비’와 같은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종의 TF같은 조직이었다. 여러 전력 및 정책 기획 및 준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보다는 시기별로 해군과 관련된 중요 이슈에 집중하여 해군에 대한 지지 논거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조직이었다. 때로는 공식·비공식 경로로 정치권에서 타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군 관련 논쟁과 타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있어 한국 해군 역시 OP-23과 같은 상설 기구의 성격을 띠는 TF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어 OP-23과 같은 조직의 창설과 더불어 한국 해군이 필요한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다. 현재 해군은 Facebook과 같은 SNS를 통한 홍보, 대민 지원 및 관련 활동의 강화를 통해 홍보의 방법을 다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변화 홍보 전략과 함께 해군 홍보에 있어 필요한 것은 반해군 여론이나 지지자들에 대한 공세적인 홍보 및 대응 전략이다. 여론이 한 번 수세적으로 몰리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또는 최초의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에 의한, 그리고 해군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공세적인 홍보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최근 해군 관련 군 비리와 성 군기 위반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해군의 대외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와중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극적 기사나 루머들이 퍼지면서 해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⁶⁵⁾ 기사나 루머들 중에는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관계가 애매하거나 매도성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위축되기 보다는 해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64) 해군본부, 「해군의 역할」, <http://www.navy.mil.kr/html/web1/001001004.html>=(접속일: 2015. 5. 26.)

65) 「가짜 평가서로 헬기 도입, 海軍은 구제불능 집단인가?」, 『조선일보』, 2015. 5. 23., 오피니언

1940년 대 후반 공군의 적극적인 반(反)해군 여론 조성 전략에 몇 년 사이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친(親)공군으로 돌아선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홍보와 반대 측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금의 지나친 수준의 루머나 무조건적인 반(反) 해군 여론에 대해 조기에 대응하여 해군에 대한 이미지 하락을 막아야 한다.

2. 통합 전력 증강에 대한 거시적 시각의 필요성

‘제독들의 반란’ 사건에서 해군 지휘부가 공군, 육군과의 주도권 투쟁에 있어 패배하였던 이유는 해군 고유의 궁극적 목표를 망각하고 편협한 시각에서 단순히 타군보다 많은 예산 확보, 더 많은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1947년까지만 해도 해군 지휘부는 포레스트 셔먼 제독을 중심으로 ‘근원지에 대한 공격’이라는 해군 전략을 수립한 상태였다. 이 전략은 기존의 해군이 수행했던 해양통제의 개념을 충족시키면서 해군에게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주었다. 또한 당시 트루먼 정부가 해군에게 원하는 것도 충족시키고 있었다.⁶⁶⁾

당시 미국 정부는 소련을 상대로 한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소련은 2차 대전 때의 일본처럼 강력한 수상 전력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고, 해양세력도 아니었다. 소련은 일본처럼 침공할 섬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본과는 다르게 소련은 강력한 육군과 공군 중심의 대륙 국가였다. 소련을 상대로 한 미래의 전쟁에서는 해군의 상륙함, 항공모함, 해병대도 필요하지 않았다.⁶⁷⁾ 또한 소련은 비대칭 전략의 일환으로 당시 미국을 능가하는 250여척의 대규모 잠수함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련의 비대칭 전략은 미국 해군으로 하여금 대잠전, 대기뢰 전에 집중하도록 강요하였다.⁶⁸⁾

하지만 포레스트 셔먼 제독의 ‘근원지에 대한 공격’ 전략은 적의 위협 원점에 대한 타격을 주장하면서 해군 항공모함의 공격적 기능을 살렸고, 해병대의

66) 트루먼 행정부는 당시 해군과 육군에 대한 통합화를 실현시켜 지휘 구조의 단일화와 합동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Stephen Howarth, *To Shining Sea: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avy 1755-1998*(University of Oklahoma Press Norman, 1999), p.478.

67) George W. Baer, 위의 책, pp.511-512.

68) Norman Polmar and Jurrien Noot, *Submarines of the Russia and Soviet Navies, 1718-1990*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1), pp.136-148.

신속한 육상 목표에 대한 타격 능력도 강조하였다. 또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항모 전단이 적 해안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해양통제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해군의 역할도 충분히 고려한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공군의 전략 폭격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군의 지상 작전을 일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당시 정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해군 전략이었다. 육군과 공군의 역할과 통합성을 모두 고려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타군에서도 서면 제독의 전략에 대해서 큰 반발은 없었다.⁶⁹⁾ 하지만 1947년 후반에 들어 해군 지휘부가 이 전략의 고수를 포기하면서 각 군과의 갈등과 논쟁은 격화되었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제독들의 반란’이라는 극단적인 군내 항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의 한국 해군 역시 공군과 육군과의 합동성 강화와 통합 전력 증강 측면에 있어 많은 이견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과거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육군에서도 해병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대양해군의 목표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THAAD가 효과적인가? 아니면 이지스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SM-3가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을 상대로 지상전을 벌이는 육군의 입장에서는 해군 보다는 공군의 전술 폭격이 더 작전 수행에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군 입장에서는 공중 우세권 확립을 위해 차기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어 한다.

국방 예산도 충분하지 못하고 각 군별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예산 소요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육군, 공군과 효과적으로 협조하며 싸울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고민해야 한다. 항공모함을 도입하고 핵잠수함 전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무기 체계가 기존 해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육군과 공군에 어떠한 전술적, 전략적 도움이 가능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국방 전력에 대한 통합적 사고와 이에 대한 거시적 사고 없이 단순히 타군보다 많은 예산과 무기체계 확보에 집중하게 되면 군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될 것이다.

1950년대 전쟁도 그랬듯이, 현대의 전쟁도 해군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육군, 공군과의 합동 전략과 유기적인 입체 전략을 구사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은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기에 해군 역시 전략의 수립과 예산의

69) George W. Baer, 위의 책, pp.539-540.

확보에 있어 타군의 역할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군 내에서 항공, 항해, 해병대 사이의 갈등 발생 시 이를 잘 조율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동성 강화 노력에서 해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육군과 공군과의 유기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해군의 중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정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곳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력 확충에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해양에서의 중요성과 자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역할에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일어난 ‘제독들의 반란’ 사건은 현대에 들어서 는 통합성과 해군의 역할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가진 제독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⁷⁰⁾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강력한 미 해군 항공대를 존재하게 해준 전환기적인 사건이라고 칭송을 받기도 한다.⁷¹⁾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세계관, 입장, 사상에 따라 다양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교훈의 도출 역시 각기 다를 것이다. 하지만 ‘제독들의 반란’ 사건이 지금의 한국 해군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은 확실하다.

60여 년 전의 미국 해군이나 지금의 한국 해군은 비슷한 상황에 봉착하여 있다. 60년 전의 미국 해군은 새로운 적 소련에 대한 대응, 핵무기의 등장, 공군의 독립, 국방 예산 삭감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해군의 미래 전략과 존재 이유에 대해 재규정해야 했다. 현재의 한국 해군 역시 지역 해군과 대양 해군 사이에서 과도기적인 갈등 과정을 겪고 있다.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에 비해 국방비는 여전히 부족하고, 세월호 사건과 해군 비리, 성 군기 위반 사건으로 해군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위협과 주변 4대 강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 전략의 수립은 더욱 어려워지고

70) George W. Baer, 위의 책, p.580.

71) J.G. Barlow, 위의 책, p.31.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독들의 반란’ 사건이 한국 해군에 주는 함의는 중요하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예산 확보와 치열해 지는 군 간 경쟁에서 적극적인 홍보 정책과 OP-23과 같은 TF의 설립이 현재의 한국 해군에 필요하다. 현대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언론의 힘이 정책 결정에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해군에 대한 잘못된 일부 정보가 해군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을 해야만 한다. 또한 꾸준한 해군에 대한 국민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여름 영화 ‘연평해전’의 개봉이다.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해군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해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군내에서 해군의 입장을 대표하고 타군과의 경쟁에 있어 해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OP-23과 같은 TF의 설립이 요구된다. 해군의 THINK TANK 역할을 하는 조직의 설립을 통해 해군의 전체 여론의 수렴 및 이를 통한 해군의 생존 논리, 발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논리를 수립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국 해군이 육군과 공군에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다양한 언론 매체가 발달하고 정보의 유통이 쉬워진 세상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해군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절실하다. 또한 현재의 해군의 어려운 국내외적 상황과 타군과의 예산 확보전의 심화는 OP-23과 같은 새로운 조직의 창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해군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고 동시에 타군의 역할과 큰 틀에서 한국의 군사 전략을 품을 수 있는 해군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해군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만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해군에서 한 단계 도약한 대양해군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 수립과 전력 건설에 있어 한국 해군의 중요 기능인 해양 우세를 견지하면서 타군과의 협력과 합동 전력 증강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포레스트 서면 제독의 ‘근원지에 대한 공격’ 전략처럼 공군의 역할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육군의 지상 작전 수행 보조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군이 해양에서의 임무만을 강조하고 해군 작전 중심

의 전력 건설과 논리를 제시한다면 이는 당연히 공군과 육군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에 있어 그들과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전략 건설과 해군의 역할에 있어 육·공군과의 합동성을 강조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해군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군이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첨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합동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군이 독자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 해군 제독들의 반란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던져주는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앞으로도 1949년 미 해군 제독들의 반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애기와 역사적 진실들을 통해 장차 한국 해군이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방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협과 취약성을 막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해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타군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해군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이 한국 해군력 성장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원문

- The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July 26, 1947 Public Law 253, 80th Congress; chapter 343, 1st Session; S. 758.
- Norman Polmar and Jurrien Noot, *Submarines of the Russia and Soviet Navies, 1718–1990*(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1)
- Merrill, Dennis, *Documentary history of the Truman presidency. Vol. 10, President Truman's fight to unify the armed services, 1945–1949*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6)
- Norman Polmar and Jurrien Noot, *Submarines of the Russia and Soviet Navies, 1718–1990*(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1)
- Revolt of the Admirals" *New York Times*, 17 Oct 1949(Time, 10/17/1949. Vol 54 Issue 16. p.23. 4p.

단행본

- J.G. Barlow 박사 지음, 윤영식 제독 옮김, 『제독들의 반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해군항공을 위한 투쟁』, (서울: 랜드 앤 마린, 2010)
- Ken Jones & Hubert Kelley, Jr. 지음, 김주식 옮김, 『Arleigh Albert Burke 제독: 현대 미국 해군의 아버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 George W. Baer 지음, 김주식 옮김, 『미국 해군 100년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 Stephen Howarth, *To Shining Sea: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avy 1755–1998*(University of Oklahoma Press Norman, 1999)
- Jeffrey G. Barlow, "The Revolt of the Admiral's Reconsidered," in William B. Cogar, ed., *New Interpretations in Naval History*(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9)
- 존 키건 지음, 류한수 옮김, 『2차세계대전사』,(서울: 청어람 미디어, 2007)
- Alexander P. De Seversky, *Victory Through Air Power*(New York : Simon & Schuster, 1942)
- Michael A. Palmer, *Origins of the maritime strategy: the development of American Naval Strategy, 1945–1955* (Naval History Center, 1990)

논문

- 문희목(2009), 「1949년 미 해군 제독들의 반란」, 『대한민국해양연맹』
- Professor Branislav L. Slantchev(2014), “National Security Strategy: Sword and Shield, 1945–1950”
- Andrew L. Lewis, LCDR, USN(1998), “The Revolt of the Admirals” 『AIR COMMAND AND STAFF COLLEGE AIR UNIVERSITY』
- Alexander P. De Seversky, “Victory Through Air Power”(New York : Simon & Schuster, 1942)
- Keith D. MC Farland, “THE 1949 REVOLT OF THE ADMIRALS”(vol. xi, NO.2, 1980).

인터넷 자료

- The American President project, 「executive order 9877」,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12717>(접속일: 2015. 04. 18.)
- 「Profile of Francis P. Matthews」 <http://www.trumanlibrary.org/profile/viewpro.php?pid=137>(접속일: 2015. 04. 28.)
- 해군본부, 「해군의 역할」, <http://www.navy.mil.kr/html/web1/001001004.html>=(접속일: 2015. 5. 26.)
- 해군본부, 「해군본부 조직도」, [http://ons.navy.mil/?gubun=srchusr&popup=yes&fromtop=yes&searchfield=00&searchword=\\$\(USERID\)](http://ons.navy.mil/?gubun=srchusr&popup=yes&fromtop=yes&searchfield=00&searchword=$(USERID))=(접속일: 2015. 5. 27.)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 <http://www.gonavy.jp/CVLocation.html>(접속일: 2015. 05.12)

신문 자료

- 「가짜 평가서로 헬기 도입, 海軍은 구제불능 집단인가?」, 『조선일보』, 2015. 5. 23., 오피니언
- William S. White, “Denfeld Sees Navy Gravely Imperiled By Chiefs Decision,” New York Times, 14 Oct 1949, 1.

Abstract

Implications of 1949 Revolt of US Admirals for ROK Navy

Shin, Moon Kyung*

In these days, 1949 revolt of admirals has a variety of evaluations. In 1949, many people thought that revolt of admirals is simply disobedience to Secretary of Defense. Revolt of admirals was considered that Navy was defeated to Air force. At that time, many people didn't put too much meaning this case. But at long last, the confidential documents about revolt of admirals opened to the public. This historic event's value was re-evaluated. Many researches were progressed in USA, On the other hand only some researches were progressed in Korea. So I try to study this topic and discover another meaning. Then, I will apply this lesson that obtained through study to our Korea Navy.

Key Words : US Navy, US Air Force, OP-23, Korea Navy.

논문접수 : 2015년 9월 30일 | 논문심사 : 2015년 11월 9일 | 게재확정 : 2015년 11월 17일

* ROK Naval Academy Cadet.